

■ 2024년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 지원심의 총평

1. 연극·뮤지컬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10:00~12: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건표, 김민정, 배선애, 임홍석, 황진수

이번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사업에는 총 395건이 접수되었으며, 깊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4건의 사업(200백만원)을 선정했다. '창작의과정'은 크게 세 항목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지원 사업의 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30%), 둘째는 활동 계획의 충실성(50%), 셋째는 활동 계획의 기대효과(20%)였다. 창작 과정에 대한 기획 의도가 분명한가,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인가, 참여인력은 적정하고 소요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되었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후속 창작활동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등의 항목으로 심의하였다. 다섯 명의 심의위원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의기준에 맞춰 각자 검토하고 채점하였으며, 그 합산한 결과를 놓고 대면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대상을 확정하였다.

창작자들에게 최근 관심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과 기술의 영역이었다. 탐구와 리서치의 많은 내용들이 이러한 기술과 예술의 결합 가능성 여부였다. 거기에 장애/비장애와 배리어프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청년과 노년의 세대, 젠더 등이 중요한 탐구 대상이었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주제들이 많아서 심의위원들은 '변별력 있는 과정'에 좀 더 무게를 두었다. 변별력은 새롭고 색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목적이 뚜렷하고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과정의 결과가 선명한 것이었다.

선정된 단체들은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으며, 리서치와 탐구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세했고, 그것의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를 분명하게 제안했다. 기획의도는 좋으나 탐구에만 머물러 향후 결과물과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고, 수행계획이 간단해서 어떤 과정인지 짐작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또한 예산 관련해서는 지원금 액수를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으며, 쇼케이스나 워크숍 등이 형식적으로 계획되어 예산책정의 대부분 항목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창작의 과정'은 창작의 결과보다 아이디어나 리서치, 워크숍, 포트폴리오 제작 등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특정 세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창작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정'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지원신청의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우선으로 이 사업의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정'을 좀 더 세밀히 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거기에 지원금액을 5백만원과 1천만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자유로운 실험의 '과정'보다는 오히려 관습적 제작 활동을 의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또한 신중하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논의했다.

추가 공모의 지원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창작의 과정'을 통해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싶은 창작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욕망과 희망 사항들을 심의 결과에 다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때론 기발하기도 하고 때론 호기롭기도 하며, 한편으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창작자들의 수많은 제안이 지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실천되기를 바란다. 무모하고 도발적인 과정들이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결과물로 수렴되어 풍성하고 다양한 빛을 발하는 예술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의위원 일동

2. 무용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15:30~17:3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요셉, 장계환, 정옥희, 정혜진, 조화연

‘창작의과정’ 사업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 정형화된 형식이 아닌 다양하고 실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조건이나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한 대상과 활동을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총 127건의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깊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8건의 사업(75백만원)을 선정하였다.

심의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신청사업이 부합하는지(30%), 활동 계획이 충실한지(50%),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20%)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다섯 명의 심의위원이 개별 심사한 후 토론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의 결과 활동 내용에서 실험성이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중론이었다. 대다수의 사업이 쇼케이스 및 사전제작을 목적으로 하나 이것이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유사-공연적인 성격이 강하여, 작업의 단계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선례가 부족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방법론적 탐구와 실험이 확장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이 이질적인 영역과 실험적인 접근법을 포괄하고 격려하는 만큼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사업 목적의 명료성과 유효성, 방법론적 실험성, 기존 작업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창작의과정’은 예산의 규모가 작고 편차도 적은 만큼 예산의 크기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정그룹은 공통적으로 뚜렷한 예술적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유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활동 계획을 고안했다. 신청자의 단기적, 장기적 작업 방향성과의 연계성이 잘 드러났으며, 활동 내용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유연하게 구성되었다.

‘창작의과정’은 실험과 도전을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정형화된 작업 도식에서 벗어나 탐구하고 역량을 키우길 장려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성찰하고 도전 정신을 발휘하는 유의미한 기회로 삼을 때 사업목적이 실현될 것이다.

심의위원 일동

3. 음악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10:00~12: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지현, 박선희, 박재성, 임기현, 조사방

이번 창작의과정 음악분야에는 총 188건의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9건의 사업(85백만원)을 선정하였다. '창작의과정' 지원사업은 음악분야 창작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충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의 문턱을 대폭 낮출 뿐만 아니라, 음악에서의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음악 활동 내용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개방형 지원사업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원사업의 취지를 인식한 음악분야 각 영역의 창작자들과 공연단체가 본 지원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심의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창작계의 관심도와 중요도를 실감할 수 있는 심의회였음을 우선 밝힌다.

창작은 일반적으로, (1) 기초단계에서의 소재발굴과, (2) 전개단계에서의 창작과정, 그리고 (3) 완성단계에서의 제작된 결과물이라는 진행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 창작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결과물, 즉 창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창작의과정' 지원사업은 위의 (1)과 (2)의 과정을 통합한,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필요불가결한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창작자의 근본적인 고충과 문제점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는 보다 발전된 창작품을 유도한다는 데에 그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심의는 신청자/신청단체의 지원계획서가 '창작의과정' 사업의 이러한 사업취지의 목적에 해당되고 부합하는가에 기본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신청자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위의 취지에 대응하여 얼마나 적절하게 사업목표와 기획의도를 진술하였는가부터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 평가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계획서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감성적인 표현으로 채워져 있어 심의위원회의 고충이 많았음을 토로하고 싶으며, 또한 신청자의 목표와 의도를 파악해 내는 데에 심의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도 아울러 밝히고 싶다.

심의의 다음 단계는 신청사업의 활동계획에 대한 충실성 평가에 집중했다. 활동계획에 대한 평가는 계획 자체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고,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이고 열띤 토론이 거듭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힌다. 이 단계의 평가는 신청사업의 활동계획을 위한 신청자의 고심 여부가 심의위원들 전원에 인식되었을 때에만 점수화되었다는 점도 여기에 명기하고자 한다. 심의회의 이러한 평가

의도는,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자의 고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신청사업이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의거한 것이다.

활동계획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심의과정 전체에서 가중치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음악의 창작과정에는 무한대의 변화성이 내재해 있으므로, 참신성이나 독창성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창작의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본 지원사업에서는 참신성/독창성이 평가점수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활동계획의 충실성에 관련된 심의에는, 한편으로는 포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신청자의 유관경력과 실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추후 신청자가 지원사업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충분한 과거 실적을 확보해 두어 사업수행 역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활동계획 심의에서 고려된 또 하나의 요소는 소요예산의 편성에 대한 평가였다. 무리한 액수의 소요예산은 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여, 상당히 긴 논의를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업신청서의 예산편성이 보다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작성되어야 사업의 신뢰도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신중하게 검토되어 평가되었던 항목은 신청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구성에 대한 평가였다. 사업 성공의 주된 요소는 주연이겠지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는 적절한 구성의 참여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악계의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이미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시기가 요구하는 창작품도 해마다 보다 더 진취적인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신청사업이 작품으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예술현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인가도 평가과정 전체를 통하여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이었다. 심의위원회의 이러한 의도가 앞으로의 신청사업 평가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사업이 우리 음악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몹시 치열했던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위에서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미비하면 그 사업은 선택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항목이 충족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선택된 신청사업들은, 이들 중에서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한 신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점은 심의위원 전체에게 몹시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고심을 끊임없이 거듭했던 심의회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최종 선정된 사업들의 공통된 강점은 항목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앞서 실제적으로 명확한 기획의

도가 제시되어 '창작의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업계획서는 심의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첫 평가단계에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싶다.

심의위원회 검토와 평가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많은 경우에서, 사업계획서의 목적과 기획의도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음악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 내용이 자신의 창작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여, '창작의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본 심의에서 심각하게 제시되고 토의된 내용들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신청사업이 '창작의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미래에 완성품으로서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앞으로도 본 지원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의에서 기준이 된 평가내용들, 즉 공표된 심의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제출된 프로젝트가 발전 가능성을 지닌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심의위원 일동

4. 전통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창작의과정 추가 공모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10:00~12: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효영, 오영주, 유민희, 이슬기, 장재효

본 사업은 창작의 과정에 관한 지원으로 전통의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 혹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확한 주제로의 접근에 대하여 시놉시스 제작, 리서치, 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결과물보다 창작을 향한 과정에 집중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17건의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서류심의를 거쳐 1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추가공모 지원예산이 정시공모에 비해 대폭 줄었음에도 정시공모보다 더 많은 신청건수가 접수되어, 선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심의에 임했습니다.

창작의 과정인 만큼 사전제작이나 아이디어 초기 구현이 명확한 사업인지, 전통예술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있는지, 개인에게 과도한 예산편성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유형 1, 2에 따라 리서치에 중점을 두는지, 사전제작 등을 포괄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전통 분야이기에 전통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기악, 연희, 소리, 무용, 무예, 공예 등 포괄적인 분야의 사업이 보였는데, 특히 연희 분야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또한 타 분야와의 협업이 주를 이루어 다원예술에 가까운 사업이 많이 보였습니다. 소재로는 굿, 민요, 잡가 등 전통 음악에 기반을 둔 사업이 많았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환경문제, 아티스트의 내면 성찰,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신청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광범위한 진행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 미디어 등 과도한 기술과의 협업으로 아이디어 구축보다 기술 실현에 포커스가 되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과도한 사업 집행, 혹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모호한 결과물이 예상되는 사업은 배제하였고, 분야와 지역의 고른 안배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한 사업을 위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창작 활동방향을 이어나가고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작의과정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많은 사업을 융 복합적인 방향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또한 전통이 변화해야 한다거나 대중 친화적 이어야 한다는 학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한 사업이 보였는데, 단순 접 목은 배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통을 심도 있게 리서치하여 원형에 가까 운 접근을 하는 시도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서는 기획의도에 비해 활동 계획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음악, 무용 등 본질 분야 외에 외적인 것에 관한 인건비가 지나치게 책정되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티스 트로서 내면의 성찰과 본질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창작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예술 현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